

# 한미약품, 경영 호조에 승진잔치

## 민경윤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 ... 영업실적 고공행진에 승진보상

한미약품이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한미약품은 12월28일 민경윤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장안수 상임고문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10명의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해마다 영업실적에서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대한 보상 성격의 인사가 아니겠느냐”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주식시장에서 액면가 기준으로 따진 절대주가에서 이미 제약업계 1위 자리에 오르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임원인사에서는 한창희 상무와 계열사인 한미메디케어 노용갑 사장이 상무이사로 발탁됐고, 우종수 제제연구실 이사와 계열사 한미IT 남궁 광 대표이사가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또 장평주 CS팀장과 김찬섭 회계자금 팀장, 서귀현 기흥연구센터 개량신약팀장, 그리고 계열사 한미정밀화학의 이용주 팀장은 각각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한양대 의대를 나와 한림대 의대 교수를 거쳐 유한양행에서 연구개발본부장을 지낸 주상언씨를 마케팅 및 학술담당 전무로 영입해 연구개발 부문을 보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9>